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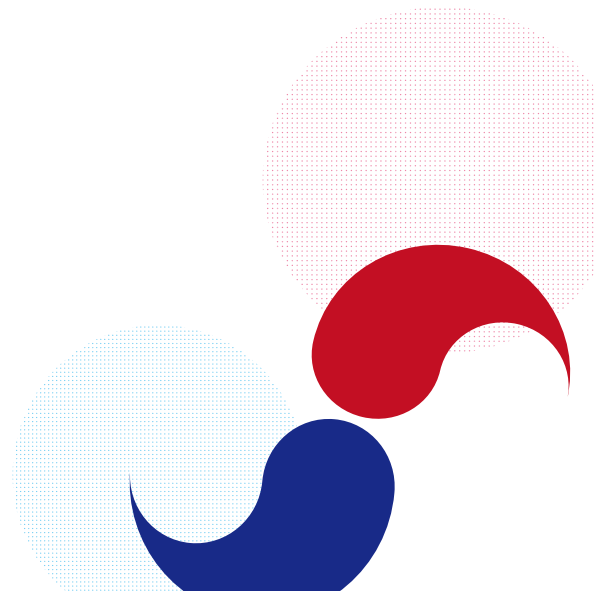
2023  
**4.25.**  
(화요일) 오후 2: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주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철, 이순창, 권순용, 김태영, 장종현, 오정현  
본부장 감경철

후원  대통령직속  
저출생대책사회의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보건복지부

협력  CTS 기독교TV 문의 02)6333-2502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

본 자료집은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 행사 자료집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자료집의 내용은 발표자의 견해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p>개회식 14:00~14:20</p>	<p>개회사 <b>김경철</b>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본부장)</p> <p>환영사 <b>서정숙</b> (국민의힘 의원)</p> <p>축사 <b>김기현</b> (국민의힘 당대표) <b>김영미</b>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p> <p>격려사 <b>장종현</b>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백석대학교 설립자) <b>박종화</b>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p>
<p>기조발제 14:20~14:50</p>	<p>좌장 <b>장헌일</b>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p> <p>기조발제. <b>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b> <b>정재훈</b>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토론 ① 14:50~15:00</p>	<p>토론 1. <b>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b> <b>임원선</b>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토론 ② 15:00~15:10</p>	<p>토론 2. <b>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b> <b>이영심</b> (씨앗행복한흙스쿨지역아동센터 센터장)</p>
<p>토론 ③ 15:10~15:20</p>	<p>토론 3. <b>마을돌봄 현황 및 정책방향</b> <b>윤태기</b>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팀장)</p>
<p>종합토론 15:20 ~15:30</p>	<p>종합토론</p>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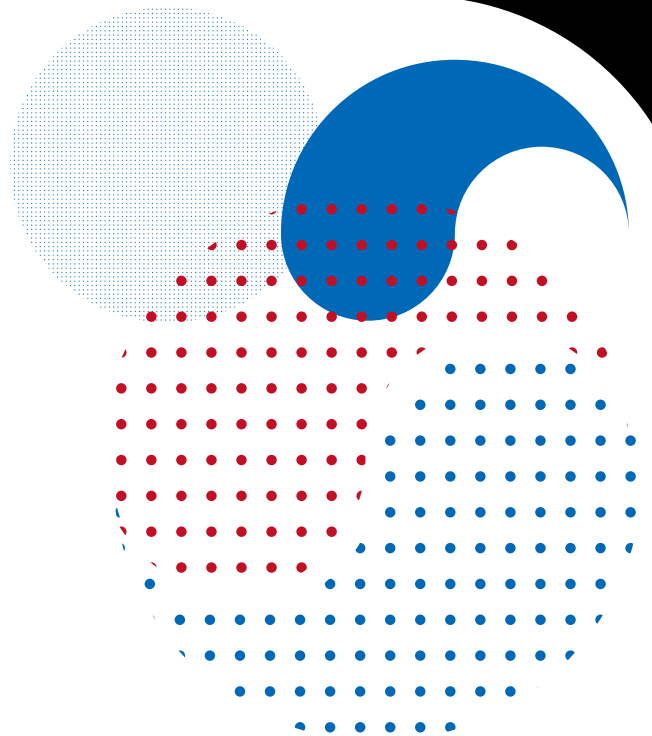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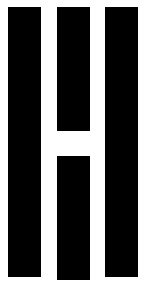
1부	개 회 사	<b>감경철</b>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11
	환 영 사	<b>서정숙</b> (국민의힘 의원)	• 13
	축 사 ①	<b>김기현</b> (국민의힘 당대표)	• 15
	축 사 ②	<b>김영미</b>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17
	격려사 ①	<b>장종현</b>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백석대학교 설립자)	• 19
	격려사 ②	<b>박종화</b>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 21
2부	좌 장	<b>장헌일</b>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기조발제	<b>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b> <b>정재훈</b>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3
	토 론 ①	<b>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b> <b>임원선</b>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43
	토 론 ②	<b>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b> <b>이영심</b> (씨앗행복한흙스쿨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49
	토 론 ③	<b>마을돌봄 현황 및 정책방향</b> <b>윤태기</b>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팀장)	• 69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

개회사  
-  
환영사  
-  
축사  
-  
격려사







감경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섬기고 있는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입니다.

작년 여름, 국가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출범한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저출생 시대의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먼저 주최자로서 국회 내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의원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님,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의원님 두 분의 축사는 저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님, 신한대학교 임원선 교수님, 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의 이영심 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강조해온 돌봄은 순우리말로서 돌아보고 보살피는 일을 뜻합니다.

당장 몸을 움직여 실제적으로 보살피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그렇기에 맞벌이가 일반화된 이 시대에는 부부 두 사람만의 아동 돌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하면서 24시간 돌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각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도 강해져 가는데 아동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멈춘 채로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돌봄의 공백을 완전무결하게 해결하고 아동돌봄 노동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할 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통치의 본질이 돌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사람으로서 국가와 공동체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힘없고 무지한 상태의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돌봄에 작은 공백이라도 있으면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변화된 아동돌봄 정책으로 그 공백을 메운다면 젊은 부부들 또한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돌만 낳아 잘 기르자고 출산억제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는 출산장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젊은 부부가 자연스레 소망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봄이 불가능하지 않게 될 때, 아이를 두고 일하러 가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때 저출생은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입니다.

오늘 ‘저출생 시대의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을 통하여 그 희망이 보다 뚜렷해지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21대 국회 전후반기 보건복지위원이자, 후반기 예산결산특위 위원 및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출생 시대의 아동돌봄정책” 국회 포럼개최에 함께 힘써주신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이철, 권순웅, 이순창, 장종현, 김태영, 오정현 여섯 분의 총재님, 본부장님이자 CTS기독교TV의 감경철 회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평균인 1.53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이 1.0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의 감소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분야를

발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으로서, 인구위기 특위 제2차 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를 상대로, 각 부처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국민들이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적시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주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에서 현저히 낮은 아파의 육아 휴직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의 보완점과 발전방향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아동돌봄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좌장을 맡으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현일 원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신한대학교 임원선교수님, 씨앗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이영심 센터장님, 보건복지부 마을돌봄 TF팀 윤태기 팀장님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 축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꽃이 피고 산록이 푸르른 계절에 국회에서 「초저출생 시대의 아동 돌봄 정책 국회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포럼을 주최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의원님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기독교계의 지도자분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단체로 대한민국의 낮은 출생을 극복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철, 권순웅, 이순창, 장종현, 김태영, 오정현 총재분들께서 많은 헌신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계신 CTS기독교TV의 감경철 회장님을 비롯한 행사를 주관하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 세계 17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초저출생 문제가



정치·경제·교육·국방 등 국가의 총체적 당면과제가 되었고, 문제의 해결책을 정부와 국회, 민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일자리, 주거의 안정과 함께 아이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충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초저출생 시대의 아동 돌봄 국회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을 경청하고, 현행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해법들이 많이 나와 윤석열 정부의 아동 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저출산대책 국회 정책 포럼에 참가하시는 주제발표와 토론자분들께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며 ‘저출생 시대의 돌봄’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출생 시대의 아동돌봄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출생아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사회 아동돌봄정책이 나가갈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정숙 의원님과 본 포럼을 주관해주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이신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축하를 위해 함께해주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정재훈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저출생국민운동본부를 이끄시는 이철, 이순창, 권순웅, 장종현, 김태영, 오정현 총재님과 이번 행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장기화, 고령화의 가속화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수 감소는 최근 원아 수 부족으로 어린이집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변경한다는 언론보도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관 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아동돌봄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들이 기관을 쉽게 찾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집 근처에서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하지만, 실제로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양육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부모와 가정에 남게 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상당히 복잡적이지만, 결국 결혼과 출산, 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개인적인 가치관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양육 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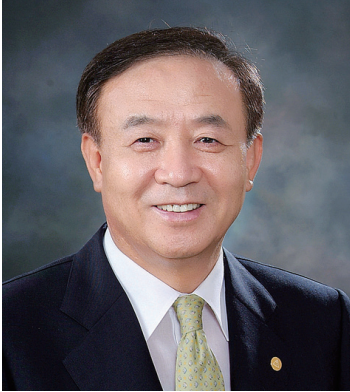
특히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 돌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늘봄학교 추진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와 국회, 종교·시민단체 등 민간이 함께 ‘저출생시대 아동돌봄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오늘의 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 논의의 장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종교계 등 사회각계가 협력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격려사



**장종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백석대학교 설립자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의 장종현 총장입니다.

만물이 회복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봄을 맞아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저출생 시대의 돌봄’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국회 안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준비해주신 서정숙 의원님과 의원실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축사로써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님,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셨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감경철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 많은 시간 공을 들여 연구한 내용을 발표해주실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님, 신한대학교 임원선 교수님, 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의 이영심 센터장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윤태기 팀장님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출범해 오늘에 이르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돌봄 문제에 대한 일관된 지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돌봄 문제의 극복이 바로 저출생 문제의 극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돌봄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돌봄의 사각지대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구간 경제력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계층적인 사각지대, 부모님의 출퇴근 시간과 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시간적인 사각지대, 농어촌과 격오지 등 공간적인 사각지대 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하여 우리는 현행 돌봄 정책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돌봄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써 오늘의 행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출생 시대의 돌봄’ 포럼의 격려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격려사

**박종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으로 섬기는 박종화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행사를 주최해주신 서정숙 의원님과 의원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로 빛내주신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의원님과 저출산고령사회  
김영미 부위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열정과 헌신으로 본이 되어 주시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감경철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발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아동돌봄을 강조하며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주제는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신한대학교 임원선 교수님, 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이영심  
센터장님께서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아주는 일은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기에 힘에 겹고 감당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돌봄이 기쁨이 되도록 부모들과 함께 가족 친지가 함께 돌보고, 이웃이 함께 돌보고, 나아가 마을과 지역, 국가가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생명의 문화가 행복으로 꽃피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을 기피하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생명문화를 창출하도록 정부 정책이 힘있게 이끌어 나가고 국민들이 떠받쳐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세대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도록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출생 시대의 아동돌봄’ 포럼을 통해 한국사회가 생명 시대의 돌봄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내빈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

## 기조발제 ①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

정재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독일 트리어대학교(Universität Trier) 사회학과 박사

前)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위원

現)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

정재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개 요

- ◎ 논의의 전제
  -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으로서 일·가정양립**
  - 아동돌봄체계의 확대 - 영유아기 중심
  - 아동돌봄체계 발전 방향과 과제

##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삶의 질이 낮으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기 어렵다. 경제적 생활수준(= 객관적 삶의 조건)과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주관적 만족도)이 합쳐져서 삶의 질 차원을 결정한다. 내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차별사회, 경쟁사회, 피로사회, 박탈사회** 등에서 찾는다.



##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 = 부모의 일·가정양립

우리는 저출산 요인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 삶의 조건, 즉 비용의 문제를 우선시한다. 출산의 필요조건으로서 비용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부모, 특히 엄마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저출산 요인이다.

일하는 부모가 돌봄으로 인하여 일·가정양립을 할 수 없다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부모의 일·가정양립은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이며,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출발점이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아동돌봄체계와 가족친화 경영 간 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은 아동돌봄체계 구축과 가족친화 경영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가능하다.



## 저출산 국가와 초저출산 국가 비교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진 국가에서는 합계출산율 2.0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대체출산율 2.1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저출산 현상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서유럽에서는 보편적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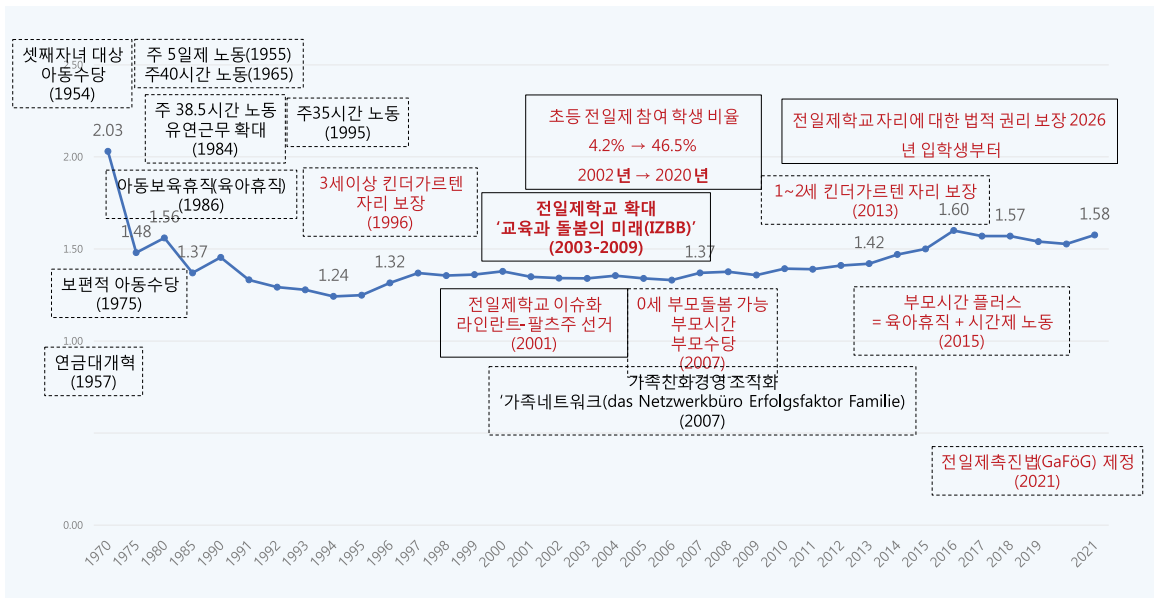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출산 현상만 보이는 국가와 초저출산 현상까지 보이는 국가가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성평등 수준, 다양한 삶(가족, 다문화)의 형태에 대한 수용 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일·가정양립 가능성, 아동돌봄체계 확대 여부 등이다.

**오늘 논의는 아동돌봄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친화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저출산 국가	초저출산 국가
성평등	높은 수준 (*영미권은 기회의 평등)	강한 성별 역할분리 규범 존재
가족 형태 다양성	정상규범으로서 법률혼 가족 감소	정상규범으로서 법률혼 가족
다문화성	높은 수준 (*노르딕 국가의 통제된 개방)	낮은 수준
일·가정 양립	남녀의 공통 과제 → 제도화·규범화	여성적 과제 → 고학력 여성 중심 출산 기피 전략
아동돌봄 지원	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조화 (*영미권은 저비용 민간 영리 중심)	독일어권 → 현금급여중심 남유럽권 → 가족 책임 강조
보육 인프라	공보육 중심 (*영미권은 민간 영리 중심)	독일어권 → 민간 비영리 중심 (1~2세 아동 지원 서비스 부족) 남유럽권 → 가족 책임 강조

출처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28쪽」을 토대로 재구성.

현금급여에 치우쳤던 가족지원에서 벗어나, 영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에 이르는 아동돌봄·교육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독일은 저출산 현상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 복지국가체제의 성립
-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 노동시간 단축
- 현금 중심 지원 → 사회적 (아동)돌봄 확대 → 남성 돌봄 참여 확대를 전제로 한 돌봄시간 보장

2018~2021년: 20억 유로 → 2022~2025년: 35억 유로(연 약 9억 유로)  
 → 2026년 이후 9억 유로에서 매년 증액 → 2030년부터 연 13억 유로 → 모든 초등학교의 전일제화

## 아동돌봄체계의 확대 - 논의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예산’은 행위지원 중심에서 결정지원 중심으로 규모 변화가 있었다. ‘행위지원’ 예산 확대는 아동돌봄체계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아동돌봄체계’ 구축은 영유아기 아동에 집중되었다.

**초등돌봄체계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 ◎ 논의의 전제

-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으로서 일·가정양립
- **아동돌봄체계의 확대 - 영유아기 중심**
- 아동돌봄체계 발전 방향과 과제

## 저출산 예산의 차원

### 저출산 예산 =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여 하는 지원(행위지원, 직접지원) 예산」

+

「출산·양육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 형성에 집중하는 지원(결정지원, 간접지원) 예산」

행위지원	결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 출산 · 돌봄을 직접 지원</li> <li>· 영유아기에 집중</li> <li>· 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의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li> <li>· 일자리 · 주거 지원</li> <li>· 보편적 사회보장제도</li> </ul>

출처: 정재훈·김수완·김영미(201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직접지원	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아이돌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온종일돌봄, 국가예방접종, 임신부, 영아 건강관리, 난임 지원, 정신건강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저축계좌, 고용안정장려금, 근로환경개선,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재양성 및 훈련지원, 청년 구직활동 및 창업 지원,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 지원,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자금 대출,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청년 임대 출자·융자,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캠페인, 홍보, 시스템 구축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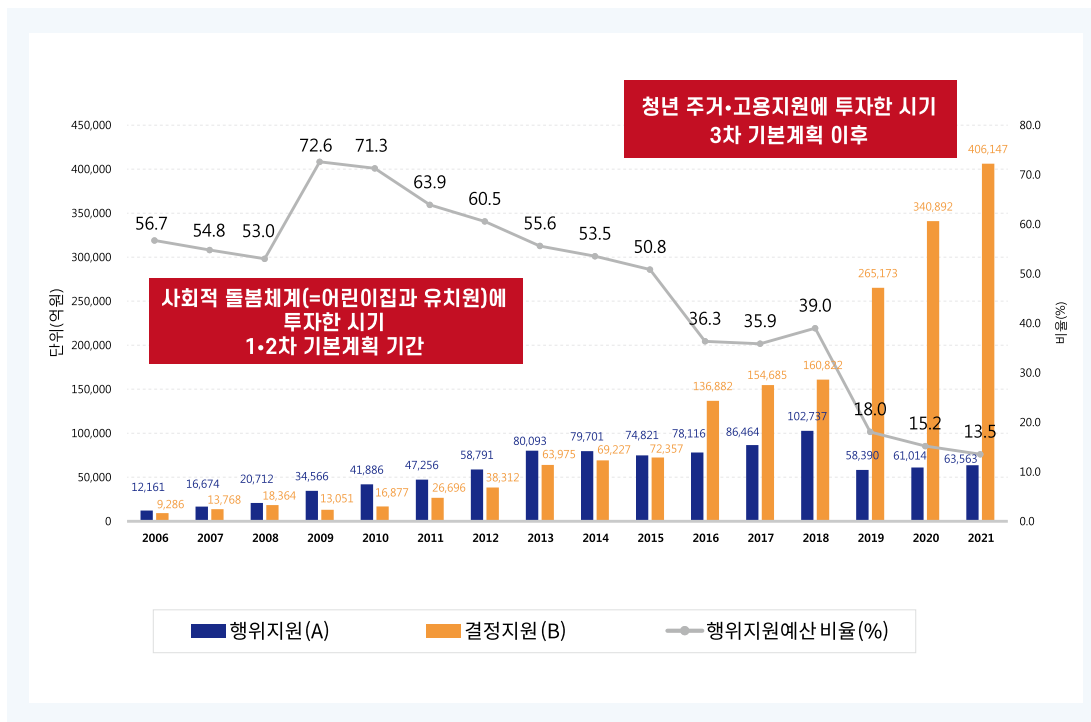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1), 기본계획 저출산 예산 분류검토(내부자료)



## ‘저출산예산’ 변화 추이 (200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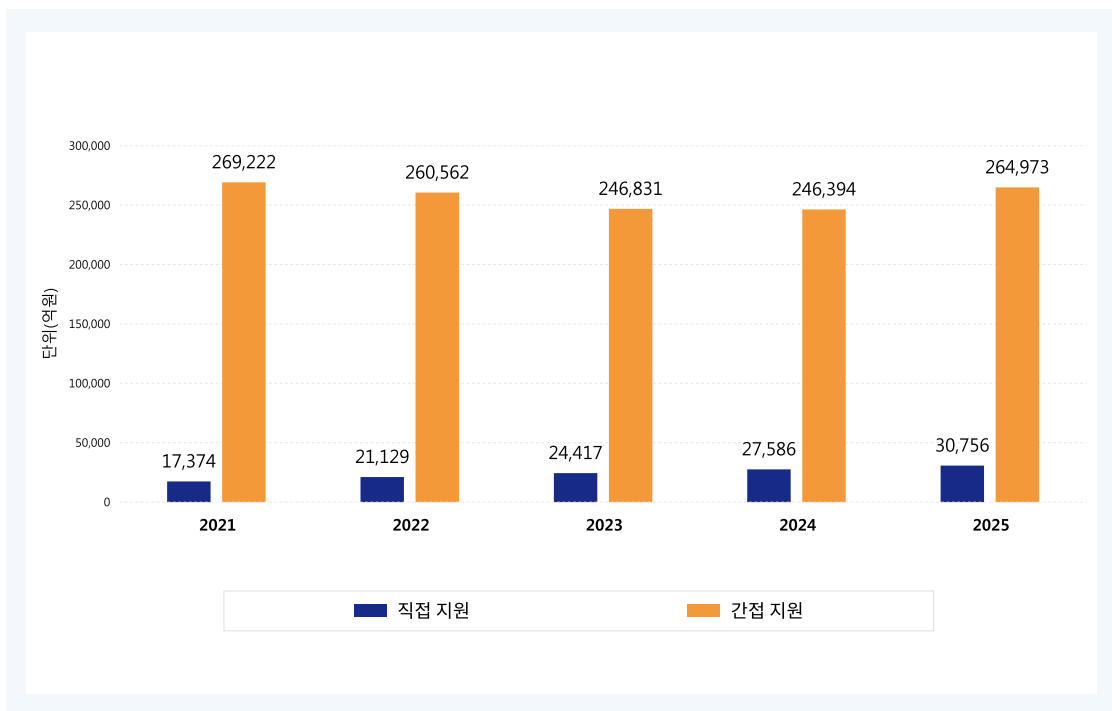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중 아동돌봄체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컸다.

3차 기본계획부터 청년 주거·고용지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 저출산 예산(4차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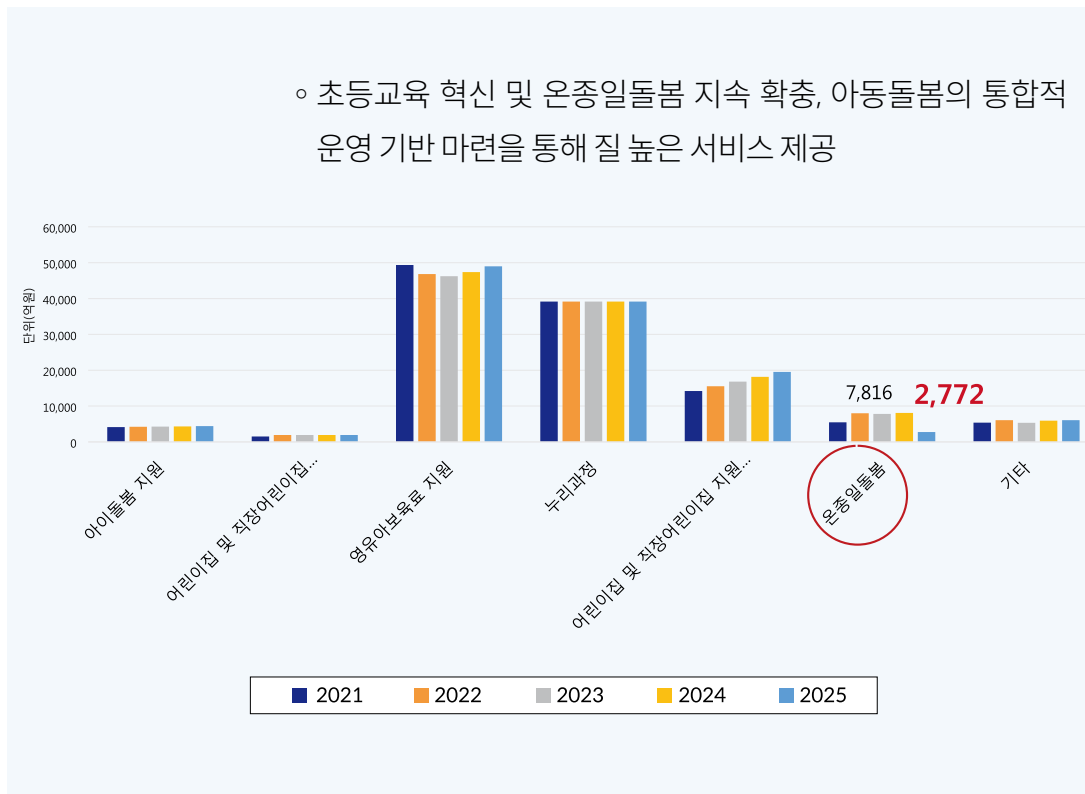
3차 기본계획 이후 결정지원(간접지원) 중심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돌봄지원 관련 예산의 비중이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아동돌봄체계 확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1), 기본계획 저출산 예산 분류검토」를 토대로 재구성.

## 4차 기본계획과 초등돌봄 확대?

4차 기본계획 중, 아동돌봄체계에서 초등돌봄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1), 기본계획 저출산 예산 분류검토」를 토대로 재구성.

## 아동돌봄체계 발전 방향과 과제 -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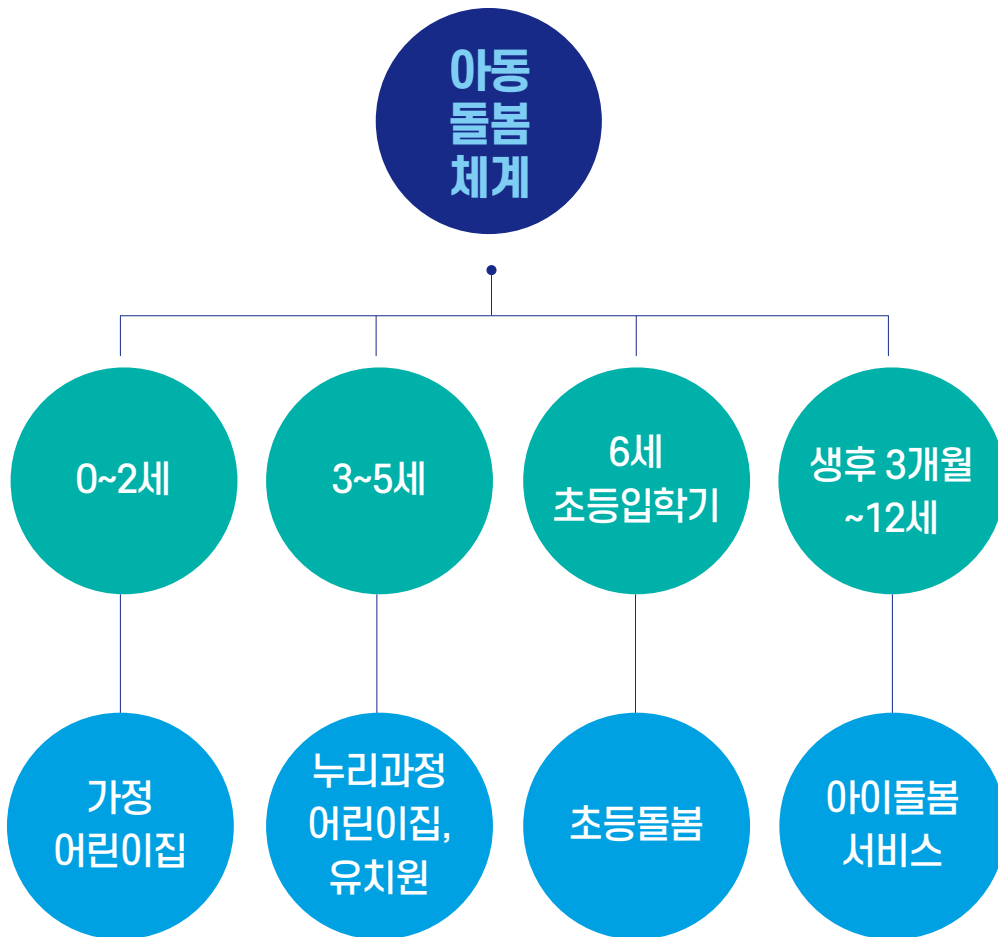
◎ 논의의 전제

-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으로서 일·가정양립
- 아동돌봄체계의 확대 - 영유아기 중심
- **아동돌봄체계 발전 방향과 과제**

## 아동돌봄체계

■ 아동돌봄체계 =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 유치원 + 초등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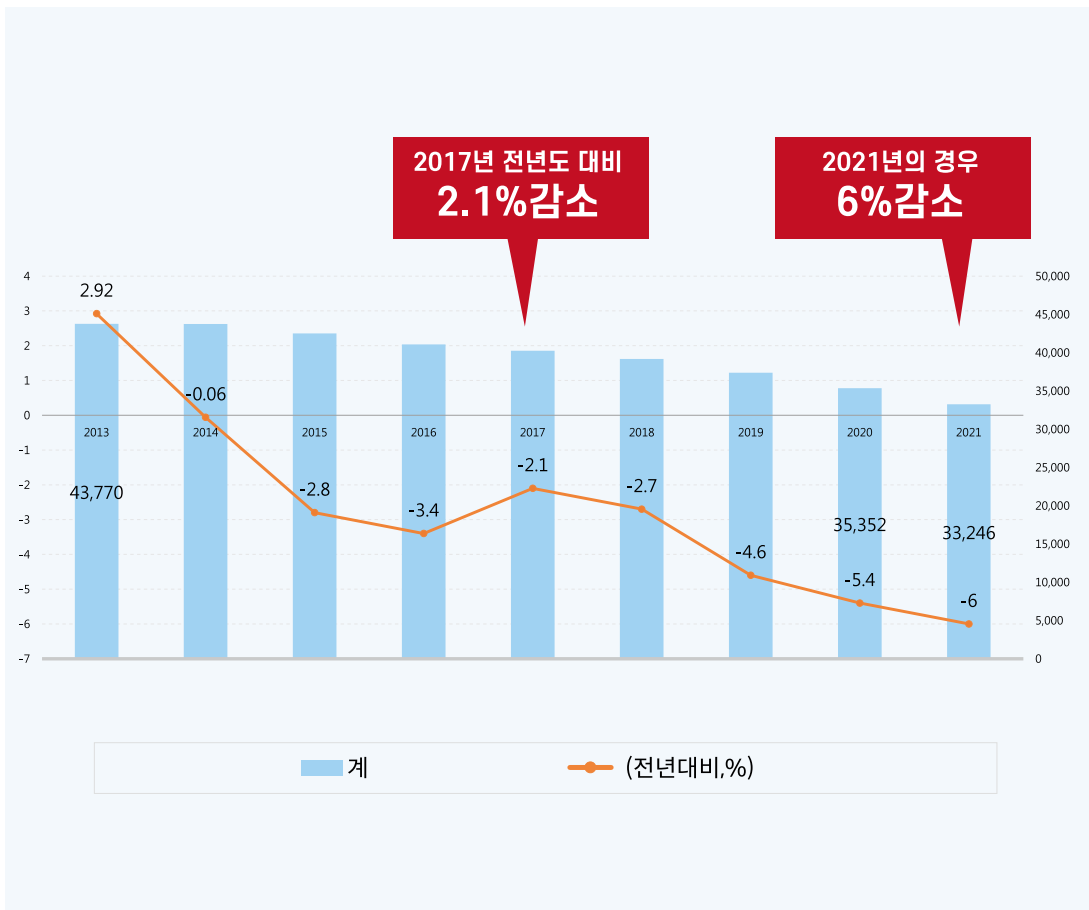
영유아기 아동돌봄체계는 확대된만큼, 저출생 효과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 유치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 초등돌봄체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수 감소 추세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수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2017년 전년도 대비 2.1% 감소한 어린이집 수는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감소율이 6% 감소하였다. 1년 사이 2천개소 이상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것이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어린이집 폐원 추세와 더불어 해당 지역별 돌봄공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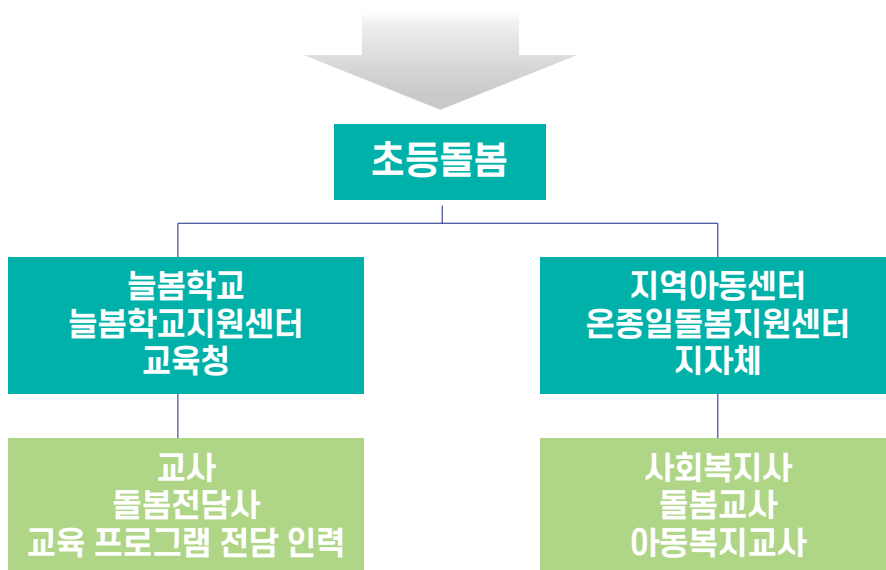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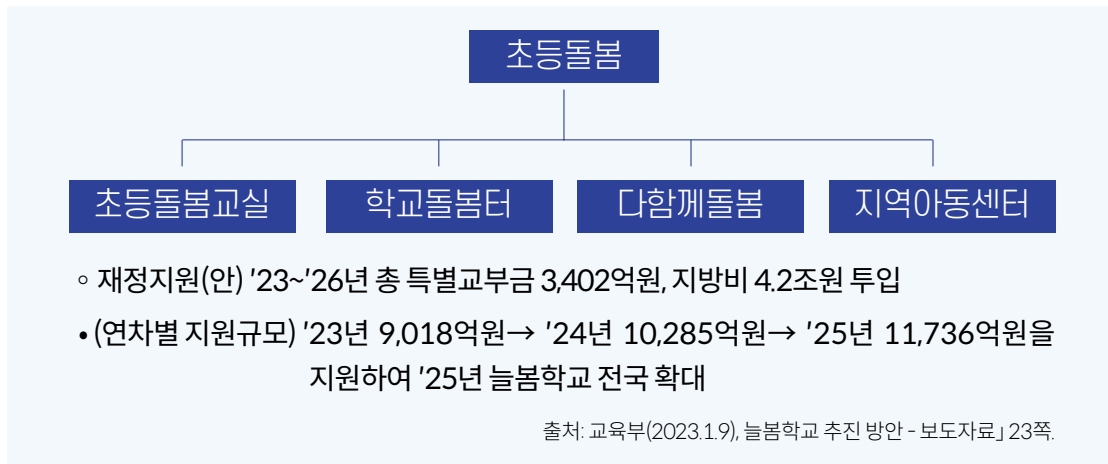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 최근 5년간('15~'19) 폐원 어린이집은 총 1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122&nPage=](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122&nPage=)), 2020년 6월 8일.

## 초등돌봄체계

시간제돌봄으로 진행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외하면, 초등돌봄체계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초등돌봄교실(이용 인원 약 30만 명)과 지역아동센터(정원 약 12만여 명)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학교돌봄터(정원 1천여 명)와 다함께돌봄(1만7천여 명)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다.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돌봄이 향후 ‘늘봄학교’ 체제로 변화할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의 기본 토대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아동돌봄정책의 변화 방향

영유아 대상 돌봄체계는 확대 지향보다 질적 수준 확보와 폐원에 따른 **돌봄공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초등생, 특히 저학년 대상 돌봄(+교육)체계 구축을 토대로 ‘초등돌봄절벽’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늘봄학교 확대는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늘봄학교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늘봄학교와 더불어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에 따른 돌봄공백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의 돌봄공백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와 아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아동돌봄정책 과제

다양한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해지는 돌봄인프라 종사자 자격 기준을 ‘아이돌보미’가 아닌, 보육교사 수준으로 통일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늘봄학교와 더불어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주체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다양한 시설 활용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시설, 주민센터, 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인프라 관련 법적 토대 마련</li> <li>• 종사자 자격 및 처우 기준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집단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층 아동으로 대상 확대</li> </ul> </li> <li>•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인력, 프로그램, 관리 체계</li> </ul> </li> </ul>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부 차원의 ‘늘봄학교’ 운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2022), 2023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54쪽.

## 아동돌봄체계 완성의 기대효과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의 반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  
(= 아동복지의 실현)

지역사회 소멸 방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아동돌봄체계 종사자  
일자리 창출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

## 토론 ①

###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

임원선 교수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실대 사회사업학과(박사)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 위원장, 의정부영아원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아림 대표이사

前)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중앙평가위원장,

한국교류분석임상학회장,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장, 한국미래복지경영학회장





##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의 발제를 통하여 현 정부의 아동돌봄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제언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을 재정리하여 아동복지 정책을 새롭게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자료: 통계청>

##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

금번 포럼에서는 일단 “아동돌봄 정책 발전방향에 따른 아동돌봄 정책 제언”이므로 이에 국한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늘봄학교’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학교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기관은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편향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사회복지기초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춘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면 이들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

다섯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 영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아동돌봄서비스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유사과목을 확인하여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욕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임신초기부터 국가가 태아의 건강관리부터 시작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외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보다 안정적인 돌봄정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

## 토론 ②

###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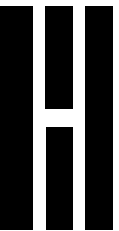
이영심 센터장

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부산 디지털 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前) 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시설장,  
김해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올키즈스트라 김해 관악단 컨소시엄 대표기관

現) (사)함께걷는 친구들 이사장





##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

시설장 : 이 영 심



•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 : 일상생활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li> <li>- 정서지원 : 연고자 상담, 아동상담, 정서지원활동</li> <li>- 교육 : 적성교육, 사회성교육, 예체능</li> <li>- 문화 : 관람, 견학, 캠프, 여행, 공연, 행사(문화체육)</li> <li>- 지역사회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 상시 및 일시도움</li> <li>- 정서지원 : 연고자 상담, 아동상담, 정서지원활동</li> <li>- 학습 : 기초외국어, 예체능, 과학, 체험(문화예술)</li> <li>- 프로그램 : 문화·예술 스포츠 등, 예체능 프로그램</li> <li>- 간식제공</li> </ul>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주관부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보건복지부	

• 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p>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p> <p>* 이용아동 등록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p>	<p>돌봄이 필요한 만 6세 - 12세 아동</p> <p>*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 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p>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비용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무료	수납한도액 월 10만원(아동 1인당)

• 운영시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월 - 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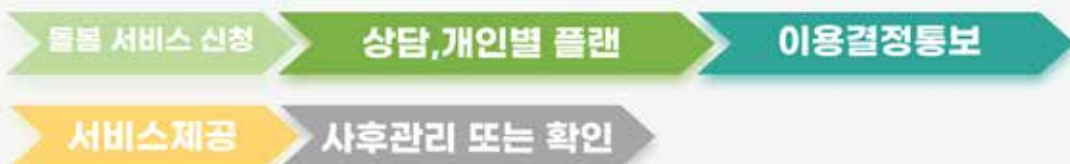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이용절차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 돌봄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 설치조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p>가) 보조금 지원시기는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 기준 24개월 이후로, 신규 시설은 상당기간 자부담 또는 지역 내 후원 등을 통해 자체운영</p> <p>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 및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p>	<p>-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p>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2021.1.12 시행(2021))</p>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 설치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p>- 신고시설과 동일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최소 24개월) 및 월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 60개월) 중 임대료 확보방안 반드시 포함</p> <p>* 시·군·구청에서는 지역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가 과밀된 경우 이용아동 수급 및 운영에 관해 설명필요</p>	<p>- 시설 리모델링비 및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경비 개소당 지원 단가 : 50 ~ 100백만원(지방비포함)</p>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기자재비

■ 지역아동센터 : 없음

■ 다함께 돌봄

면적	설치비	기자재비
132m <sup>2</sup> 미만	50백만원	20백만원
132m <sup>2</sup> 이상 ~ 198m <sup>2</sup> 미만	75백만원	30백만원
198m <sup>2</sup> 이상 ~	100백만원	40백만원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인건비

■ 지역아동센터

정원 구분	법정종사수	월 기준액
10인이하	1명	2,976천원
10~19인이하	2명	5,586천원
20~29인이하		
30인 이상	3명	8,196천원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 인건비

### ■ 다함께 돌봄

- 센터장 1인, 돌봄선생님 1~2인(시간제(4시간) 돌봄선생님 2~4인)의 인건비(지방비 포함)  
\* 월 급여,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정원별 돌봄선생님 차등지원 기준

정원 구분	월 기준액
30명 이하	1인(2인)
31명 이상 40명 이하	1.5인(3인)
41명 이상	2인(4인)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자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 인건비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자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시설장 월 2,976천원 (월지급액 2,494,000원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월지급액의 19.31%))	센터장(8시간) 1인 : 3,089,000원 (2,584,000원이상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생활복지사 월 2,610천원 (월지급액 2,187,000원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월지급액의 19.31%))	- 돌봄선생님(8시간) 1인 : 2,867,000원 (2,399,000원이상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시간제 돌봄선생님(4시간) 1인 : 1,434,000원 (1,199,000원이상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운영비

■ 지역아동센터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정원 구분		법정 종사수	월 기준액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10~19인이하	동 지역	2명	1,060천원	480천원
	읍면 지역		1,231천원	490천원
20~29인이하	동 지역	2명	1,384천원	500천원
	읍면 지역		1,580천원	520천원
30인 이상	동 지역	3명	1,460천원	500천원
	읍면 지역	3명	1,645천원	520천원

● 운영비

■ 다함께 돌봄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 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및 사업비 등
- 개소당 지원 단가 : 월 100만원(지방비 포함)
  - ※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선정센터의 경우, 월 50만원 추가 지원
  - ※ 지자체별로 추가 운영비 지원 가능

- 정책제안

1) 돌봄 기관 간의 차별을 하지 말라.

2) 돌봄 복지사는 아동 돌봄을 할 것인가 과한 행정업무를 할 것인가?

3) 늘봄 학교에 대한 생각

[출처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사례-참고자료]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이 영 심

## 지역아동센터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 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

## 핵심가치

-  예수그리스도의 주권
-  순수성
-  투명성
-  협력
-  전문성
-  정의와 혁신
-  감동

## 지역적필요성 - 위치



## 지역적필요성 - 이용아동



## 지역적 필요성 - 환경

01

1998년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료공부방을 운영했던 씨앗교회가 김해 내 슬럼가라고 불릴 만큼 지역의 물리적 여건이 어려운 현 위치로 건축, 이전

02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기에 이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05년에 기아대책과 함께 센터를 개소

01

이곳에 오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는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이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느껴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한다.

02

항상 정직한 청지기로 아이들을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줌으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03

우리는 가족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내 자녀의 아픔으로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끝까지 돌본다.



# 비전

---

전인적인 치유와 교육을 통한  
회복의 대안교육이 실현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다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접근성 용이

- 지속적 돌봄 가능

돌봄이 초등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되어서도 이용이 가능하기에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다. (본 센터의 이용아동의 대부분은 청소년까지 이용하여 현재 50%가 청소년이용아동)

- 맞춤형교육지원

사교육이 어려운(경제적, 수준 등) 아동들의 맞춤형교육지원 가능 (장애, 느린 학습자)

- 아동·청소년 문제예방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확보

(한국어지도, 학교온라인수업지도, 진로교육, 부모와의 상담을 통한 소통 등)

## 아동, 가족의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 상담실시

- 다양한 가정형태 (다문화, 모자, 부자가정, 조손가정, 장애가정,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에게 욕구에 맞는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상담프로그램 실시





-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활동 실시



상담을 통해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신고 및 위탁하여 위기에서 보호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에서 개입하기 어려워하는 가정의 아동을 스스로 신고 할 수 있게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함으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지원

-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활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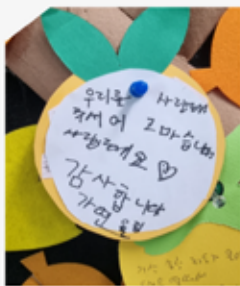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다양한 활동으로  
지원 (인천 다문화 박물관 여행,  
다문화 엄마들의 일일 요리수업,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활동 실시



다양한 재능을 있는 아이들에게 학원, 후원 연계하여 지원함으로 전문인으로 성장하고 있음 (요리사, 헤어디자이너, 음악 전공생, 사회복지사, 축구선수 등)

• 소규모 가정형태의 이용시설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약간의 규칙을 세워 지내는 분위기
- 졸업생들의 봉사활동 및 멘토 역할로 이용아동들의 본이 됨
- 청소년들이 초등동생들을 도와 학습지도를 함
- 비장애 아동들이 장애아동을 돕는 분위기
- 법인에서 지원하는 정서프로그램 "감사비타민"을 진행

• 빈곤위기 아동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정책반영 활동

- 작은 힘이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소리를 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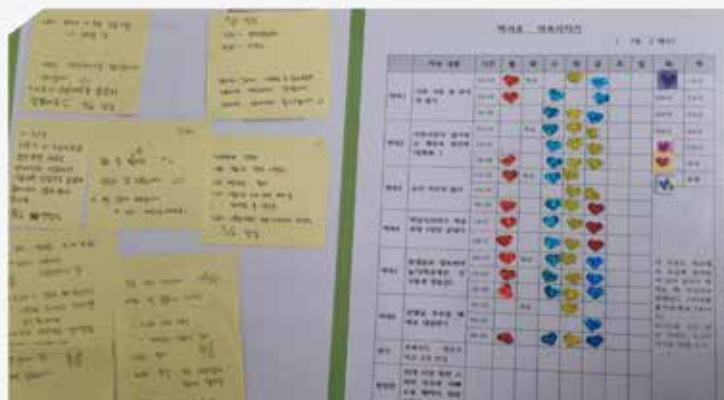
##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연계로서의 기능

-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기능

코로나19 같은 위기시기에 아이들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활동



-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지망 강화



초등학교와 MOU를 맺고 교육복지사, 교장선생님 등과 회의를 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적응력을 위한 지원

- 가족지원 기능 강화
-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 맺는말



“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

토론 ③

##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

윤태기 팀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사회보장행정데이터터TF 팀장

마을돌봄TF 팀장





MEMO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

발행일 2023년 4월 25일  
발행인 서정숙, 감경철  
발행처 서정숙국회의원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08호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주)기독교텔레비전  
제작부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TEL \_ 02.6333.2502  
디자인·인쇄 우성프린테크 TEL \_ 02.2278.9260

© 2023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 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책자의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원고는 저자들의 개인 의견을 서술한 것이므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

국회의원 서정숙 의원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TEL\_02-784-1255  
TEL\_02.6333.2502